

통신사 기록을 통하여 본 일본의 설날 풍속*

— 海行摠載를 中心으로 —

魯成煥**

目次

1. 서론
 2. 기록에 나타난 일본의 설날
 3. 기록에 보이지 않는 설날의 민속
 4. 通信使들의 日本 설날에 대한 認識과 海行摠載의 意義
 5. 결론
-

1. 서론

한 나라의 민속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다. 자국과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은 이를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학문이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도 필요로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간적인 투자도 중요하다. 그 단적인 예로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 얻어진 해답이면 일수록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깊이를 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는 먼저 자신의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와 반대로 화두를 가지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 자신의 화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현장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릴 단점을 가졌다 한다면, 후자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편견 없이 객관성을 유지하며 현지의 문화를 바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조선통신사들의 기록 모음집인 『해행총재(海行摠載)』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교사절단이었기에 일본의 민속문화에 대한

* 이 논문은 2003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교수 비교민속학

어떠한 화두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어서 1년 가까이 일본에서 체재함으로써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졌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본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매일 일기의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야말로 민속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이 현지조사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며 매일 그 결과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작업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그들의 기록은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조선통신사들의 기록이 민속학적으로도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상과 같이 방법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가지는 내용이 정치 외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의 생활과 풍습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관혼상제와 세시풍속과 같은 시간의 민속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걸쳐 조선인의 눈에 비친 특이한 일본인의 생활습속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록은 외교사적인 사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민속학적인 가치로서도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속학계는 물론 일본의 민속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그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태문과 필자가 그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태문은 사행문학적인 관점에서 통신사들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대마도의 세시풍속을 소개하였고,¹⁾ 그에 비해 필자는 일본의 민속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의 세시풍속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문헌자료의 가치를 인정하여 일본의 설날과 단오 그리고 칠석과 「오봉」의 연구에 통신사의 기록의 소개와 약간의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이다.²⁾

그러므로 이들의 연구는 아직도 소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민속문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인식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통신사가 남긴 기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첫째는 그것을 통하여 당시의 한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역사학적인 관점이고,³⁾ 둘째는 그에 반영되어 있는 사상과 예술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문학적인 연구이며,⁴⁾ 셋째는 그것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려는 일본관에 관한 연구이다.⁵⁾

1) 한태문 「통신사 사행록에 반영된 대마도」 『일본연구(1)』(울산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년), p19-20

2) 줄고 「일본민속 오봉의 연구」 『인문논총(11)』(울산대, 1996년), 「일본의 단오민속」 『경산문화연구(6)』(경산대, 2002년), 「일본 칠석민속의 연구」 『일본문화연구(8)』 『동아시아일본학회, 2003년』 등 참조.

3)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손승철의 『근세한일관계사』(강원대 출판부, 1987년)와 이원식의 『조선통신사』(민음사, 1991년) 등이 있다.

본고는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로서 먼저 세시풍속 중 설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의 기록 가운데 세시풍속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설날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들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것을 보았으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보았던 것을 현재의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생겨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일본 설날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 그들의 기록이 민속학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날에 관한 기록은 강 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 임 광(任統)의 『병자일본일기(丙子日本日記)』, 김 세렴(金世濂)의 『사상록(槎上錄)』, 황 호(黃虜)의 『동사록(東槎錄)』, 조 엄(趙嚴)의 『해사일기(海槎日記)』에서 찾을 수 있다. 강 홍중은 1624년(인조 2년) 토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하여 회담겸쇄환사를 파견되었는데, 그 때 그는 부사의 소임을 맡았다. 그리고 임 광, 김 세렴, 황 호는 1636년 인조 4년 통신사의 복구와 태평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파견되었던 인물들이다. 그 때 임 광이 정사, 김 세렴이 부사, 그리고 황 호는 종사관의 소임을 각각 맡았다. 한편 조 엄은 1764년(영조 40년) 토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하여 정사로서 파견되었다. 이처럼 그들은 사행들 가운데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본설날에 대한 인식은 좁게는 조선통신사에 국한된 일본관일 수도 있으나, 넓게는 조선시대의 지식계급이 가지는 보편적인 일본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록을 연구한다는 것은 조선의 지식인의 일본관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그럼 먼저 그들은 일본에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보았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 기록에 나타난 일본의 설날

(1) 설날장식(門松, 左繩)

이들의 기록에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설날장식들에 관한 것을 찾아

-
- 4)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소재영과 김태준의 『여행과 체험의 문학』(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6년)과 한태문의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1995년 부산대 학위논문) 등이 있다.
 - 5) 그 대표적인 예로 정장식의 「임진왜란전의 대일본인식」(1990년), 「임진왜란후의 대일본인식」(1997년), 「1936년 통신사의 일본인식」(1999년), 「계미(1643년) 통신사행과 일본인식」(2001년) 등의 연구와 정응수의 「조선유학자가 본 일본의 성문화」(1999년),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 등의 연구가 있다.

볼 수 있다. 가령 강 홍중의 것에서 「집집마다 문 앞에 송죽과 잡초를 걸어 우리나라의 푸닥거리하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중화의 풍속을 약간 모방한 것이었다.⁶⁾」라는 것이 보이거니와 김 세렴의 것에서도 「어제부터 보니 인가에 대나무가지를 어지러이 꽃고...⁷⁾」, 또 황 호의 것에서도 「문 밖에 솔과 대를 어지러이 꽃고 감 한 알을 걸었으며」⁸⁾라는 부분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임 광은 관심이 높았던지 「집집마다 대와 소나무 가지를 문전에 꽃고, 또 짚으로 壯頭飛蓋의 모양처럼 엮어서 대와 소나무 가지의 허리통을 둘러매고, 거기에는 또 黃柑 한 개를 달고 紙錢을 이리저리 달아서 묵은 해를 보내는데...⁹⁾」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들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날장식물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는 대문의 입구에 장식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김 세렴은 다만 대나무를 어지러이 꽃는다고 하여 그 장소에 대해 애매하게 표현하였지만, 강 홍중은 분명히 그 장소를 문 앞이라고 했고, 또 송죽과 잡초를 건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 김 세렴의 그것 보다 좀더 구체적이다. 그리고 황 호도 강 홍중과 같이 그 장식물은 문 밖에 있으며, 솔과 대에다 감 한알을 걸어 두었다고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살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비한다면 임 광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를 매우 꼼꼼하게 관찰하고 있다. 즉, 그 위치는 문 앞이며, 장식물 내용이 대나무와 소나무로 되어 있으며 또 그 허리 부분에는 장두비개처럼 짚으로 엮어서 둘러쌌으며, 황감과 지전을 매달아 놓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아닌 가도마 쓰(門松)를 묘사한 것이다. 가도마쓰란 일본설날의 장식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이는 설날의 신이 장림하는 도구로서 문 입구의 양측에 세우는 장식물이다. 그 모양은 비스듬히 자른 3개의 대나무를 화분에 심듯이 세우고 그 뒤에 소나무를 덧붙여 세우고 그리고 밀둥치에다 짚 또는 나무토막을 엮어서 둘러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나무를 두 개를 하는 곳도 있어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다 새끼를 치고 또 감굴과 「시데(四手)」라 하여 흰 종이를 길다랗게 오려 매달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보고 그들은 솔과 대를 어지러이 꽃았다가 했고, 또 밀둥치에 감은 것을 장두비개와 같다고 했으며, 감굴을 감 또는 황감이라고 했고,¹⁰⁾ 「시데」를 지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둘째는 문에 장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김 세렴은 「문 밖에 감굴 큰 것 한 덩이를

6) 강홍중, 「동사록」 『국역 해행총재(3)』(민문고, 1967년), pp 247-248

7) 김세렴, 「해사록」 『국역 해행총재(4)』(민문고, 1967년), p124

8) 황호, 「동사록」 『국역 해행총재(4)』(민문고, 1967년), p409

9) 임광, 「병자일본일기」 『국역 해행총재(3)』(민문고, 1967년), pp380-381

10) 여기에서 말하는 황감이란 굴. 유자. 굴감 등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국세시기 11월조에 제주도에서 조정에 그러한 것을 진상하고, 이를 기념하여 성균관과 4학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이고 굴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柑饗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달고 또 새끼에 벼짚을 달아 문 위에 치며」라고 했고, 황 호는 「문 위에 새끼를 두르고 서...」라고 서술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의 설날에는 출입문에다 우리나라의 금줄처럼 새끼를 쳤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황 호는 단지 새끼라고 했지만 김 세렴은 새끼에다 벼짚을 달았다고 했다. 이처럼 당시 문에 치는 새끼에도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단순한 새끼를 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 그 새끼에다 가지런히 벼짚을 매달아 장식한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 세렴의 서술 중 문 밖에 감귤 큰 것 한 덩이를 달았다는 부분이다. 이 감귤을 어디에다 달았는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새끼와 함께 매달아 놓은 감귤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설날이 되면 출입문에다 여러 가지 물건으로 장식한 새끼를 쳐놓는 풍습이 있다. 이를 「시메나와(左纏)」라 하는데 설날의 신이 머물고 있다는 표시이다. 일종의 금줄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한 집에 치지만, 일본에서는 신이 있는 곳에 친다. 설날에는 각자의 집에 설날의 신이 강림하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의 장식을 해놓는 것이다. 벼짚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점이나, 그 모양과 그것을 장식하는 내용물은 지역마다 각기 조금씩 틀린다. 그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는 새끼의 중앙 부분에다 감귤 종류의 과일을 하나 달아 놓는 것이다. 이를 빠뜨린 황 호는 그것을 매달지 않는 「시메나와」만을 보았거나 아니면 성의 없게 기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에 비해 김 세렴은 이를 빠뜨리지 않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을 「시메나와」와 분리하여 기술함으로써 「시메나와」와 별도로 감귤을 문 밖에 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이 또한 세심한 관찰에서 생겨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여하튼 조선통신사들은 일본의 설날장식인 「가도마쓰」와 「시메나와」를 직접 보았던 것이다.

(2) 대문 열지 않고 근신생활

또한 그들은 당시 일본인들의 특이한 설날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즉, 임 광은 「왜속에서 이 날에는 집집마다 문을 닫고 나가지 않고 15일 이전에는 오로지 忌諱만을 일삼고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¹¹⁾고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와 같은 기록을 김 세렴도 「집집마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 길 다니는 사람도 끊어져 마치 한식날과 같았다. 15일 이전에는 경삿날을 꺼리고 온갖 일을 거행하지 않으며 ...」¹²⁾하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정월 초하루를 어떻게 보내었는지 그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즉, 그들은 문을 닫고 집 안에서만 보내는 풍속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러한 경향은 도시의 상인들에게 강하여 가령 교토(京都)의 상인들은 초하루부터 3일간, 또 에도(江戸)에서는 하루동안 대문을 열지 않고, 주렴을 길게 늘어뜨리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풍속이

11) 임광. 앞의 책. p381

12) 김세렴. 앞의 책. pl24

있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는 세배인사마저 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여행을 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문을 열지 않고 집안에서 근신했던 것은 福神이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이다.¹³⁾ 이는 마치 설날 때 청소를 하거나 먼지를 털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복이 나간다는 속신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날에는 부녀자들이 물에 손을 담그지 않는다 하여 가능하면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경우도 생겨난 것도 모두 복신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민속을 몰랐던 강 홍중은 “본관의 대관 등은 한갓 접대에 근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보내어 문후도 하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왜인 가운데에서 사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¹⁴⁾”고 세배를 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1636년 통신사 일행이 그 시기에 카나가와에서 에도를 향해 길을 떠나려고 하자 일본측에서 “어제 대군께서 머물러 과세하시도록 청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데, 신정의 보름 이전은 나라의 풍속에 길 떠나는 일이 아주 없으므로 감히 억지로 말리지 않았으나, 元日に 존귀한 손님이 길을 가시게 함은 손님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라 하여 올 때에 저희들에게 분부하시되 이곳에 머무르도록 하라 하셨으니 행여 가시는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¹⁵⁾”라고 간곡하게 말렸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일본인의 생활 풍속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심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3) 세배풍속(名刺受け와 門禮)

그리고 그들은 특이한 일본인의 세배풍속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 광은 “비록 오가며 세배하는 규례가 있기는 하나, 후문에서 이름을 적고 선물을 놓고 가는데 주인 역시 나와 보지 않고 문 밖에다 종이, 붓, 베틀만을 놓아둘 뿐이다.”고 했고,¹⁶⁾ 황 호 또한 “세배하는 예는 비록 있기는 하나 뒷문으로부터 이름을 써넣고 선물을 두고 간다. 그 집에서도 역시 나가서 접대하지 않고 다만 종지와 붓을 밖에 둘 뿐이다.”라고 임 광과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¹⁷⁾ 그리고 김 세렴도 그들과 똑같은 말을 다음과 같이 “세배하는 예 같은 것도 있기는 하나 뒷문에서 종지에 이름을 써 놓고 가는데 그 집에서도 역시 나가서 접대하지 않고 다만 종지와 붓을 밖에 두어 이름을 써 놓게 할 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⁸⁾

13) 鈴木堂三『日本年中行事辭典』(角川書店, 1977年), p65

14) 강홍중. 앞의 책 p247

15) 김세렴. 앞의 책 p124

16) 임광. 앞의 책, pp380-381

17) 황호. 앞의 책, p409

18) 김세렴. 앞의 책, p124

본래 손님의 접대는 방으로 안내하여 주인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도소주(屠蘇酒)와 세찬(歲饌)을 접대하는 것이 정식이며, 또 손님은 오래 동안 머물면 실례가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김 세렴이 “大官 같으면 그 관하 사람들이 들어와 뵈고 土盃에 金注(금술병)로 虛酌(형식만 갖춘 잔질)하는 예를 하여 조금 맛보고 물러간다고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¹⁹⁾ 즉, 토배에 금주로 허작한다는 것은 주인이 권하는 도소주를 마신다는 것을 가리키며, 조금 맛보고 물러간다는 것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생략하고 문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풍속이 생겨났다. 이를 「몬레이(門禮)」라 했다. 이 때 주인은 입구에다 쌀, 떡, 다시마, 꽃감, 새우, 멸치조림, 청어 알, 밤 등 접시나 그릇에다 가득 담은 것을 현관에다 장식해두었다가 손님이 오면 이를 권했다. 그러면 손님은 한 개정도 집어서 먹는 시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였다. 이러한 「몬레이」는 통신사들이 목격하지 못했다.

이것 또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더욱 간략화 하여 현관에도 들어가지 않는 풍속마저 발생했다. “웃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年始帳”이라는 노래가 나올 만큼 세배하러 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현관에 놓여져 있는 장부에 기재하고 또 가지고 갔던 선물을 놓고 가는 것이 당시의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²⁰⁾ 이를 일본 민속 용어로는 「메이시우케(名刺受け)」라 한다. 임 광, 황 호, 김 세렴이 함께 머물렀던 카나가와에서는 「아자레이(字禮)」라고도 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이상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통신사들이 흥미를 가지고 목격하였던 것이다.

(4) 세이보(歲暮)

설날에 주고 받는 선물을 「토시타마(年玉)」라고 한다면 설날이 되기 전 그믐께 서로 주고받는 선물은 「세이보(歲暮)」라 한다. 통신사들도 12월 30일에 그러한 경험을 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조 임이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馬州 太守는 洪魚, 鏡餅을, 以酏 중은 柑子, 昆布를, 長門州 太守는 향이, 생밤을 바치고, 日供 이외에도 돼지 한 마리, 찹쌀, 팥을 바쳤으니, 모두 설날을 위한 別問이다.” 라고 했다.²¹⁾ 또 “長門州 太守가 설떡 두 켜를 보내왔는데 떡 하나의 크기가 쌀 서말은 되겠으니 큰 떡이라고 할 만하였다. 주방주 태수 源經永이 杉重을 보냈는데, 그 안케 위에 仮花 한 송이 꽂았으니, 기이한 것을 몹시 좋아한다고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²²⁾

19) 김세렴. 앞의 책. p124

20) 川田壽『江戸風俗 東都歳事記を讀む』(東京堂出版. 1993年). p16

21) 조임. 앞의 책. p128

22) 조임. 앞의 책. p131

이러한 기록을 보면 당시 일본인들은 세모로서 주고받는 선물로서는 홍어, 경병, 감자, 다시마, 향이, 생밤, 찹쌀과 팥 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돼지 한 마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세모의 선물로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것들이 못된다.

(5) 토시타마(年玉)

그들은 세배를 갈 때 가지고 가는 선물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즉, 임광은 “그들이 선물하는 것은 平交에는 종이나 부채를, 尊處에는 의복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관백도 이 날 역시 歲衣를 천황에게 드렸다 한다.”고 했으며,²³⁾ 황 호 또한 「무릇 그 선물이란 맞사귀는 사이면 종이 부채로 하고 존경하는 자리이면 의복으로 한다. 그러므로 장수들이 관백에게 옷을 바치며 관백 또한 왜황에게 옷을 바친다 한다.²⁴⁾고 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당시 새해의 인사 때 가지고 가는 선물을 「토시타마(年玉)」라 했다. 보통 부채가 많이 사용되어졌고, 받는 쪽에서는 부채를 넣었던 상자가 높게 많이 쌓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을 정도이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필요 없게 된 부채상자를 사러 돌아다니는 장사꾼마저 생겨났다.²⁵⁾ 그 뿐만 아니라 선물로서 부채와 함께 종이도 하고 또 천황이나 「쇼군」에게는 의복으로 하고 있음을 그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술이 모두 전언의 형태를 취하는 간접화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매우 재미있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것을 김 세렴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즉, “式部와 왜장들이 뵈러 왔는데, 藤智繩이 작은 봉투 한 두 장을 사신에게 바쳐, 세배하는 예물로 하므로 뜯어보니 각각 무게 한 돈쯤 되는 황금조각이 들어 있었다. 역관에게 물으니 일본 풍속에 만약 이주 존귀한 데라면 元日に 이렇게 한다고 한다 드디어 도로 내어주니, 지승이 머리를 조아리며, “이는 곧 하례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이 그러합니다.” 하였으나, 이튿날 도로 주었다. 는 부분의 기술이다.²⁶⁾ 여기에서 보듯이 연하의 선물은 평균로서는 부채, 종이를 하지만 존처에는 의복 이외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황금조각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등지승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풍습인지 아니면 조선통신사에게 적용된 특수한 상황인지 알 수 없다. 만일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존처에 주는 새해 선물에 황금조각(현금)도 함께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23) 임광. 앞의 책. p381

24) 황호. 앞의 책. p409

25) 鈴木棠三『日本年中行事辭典』(角川書店, 1977年). p66

26) 김세렴. 앞의 책. pl24

(6) 설날음식(御節 雜煮 屠蘇酒)

통신사들이 설날의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가령 1월 1일에 “의성이 술과 떡 전복을 보내고, 조흥이 술과 떡을 보내 왔으므로 원역들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강 홍중의 기록과 1월 3일에 “장문주 태수가 설떡 두 켤을 보내왔는데, 떡 하나 크기가 쌀 서말은 되겠으니 큰 떡이라고 할만하였다. 그리고 周方州太守 源經永이 杉重을 보내었다.”라고 조 엄의 기록, 그리고 “土盃에 金注(금술병)로 虛酌(형식만 갖춘 잔질)하는 예를 한다.”는 김 세림의 기록뿐이다²⁷⁾

그러나 이와 같은 짧막한 그들의 기록은 사실 매우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는 일본의 설날요리라 할 수 있는 「오세치」와 「조오니」 그리고 도소주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세찬을 「오세치」라 한다. 「오세치(御節)」란 「오셋쿠(御節供)」의 약자이다. 「오셋쿠」는 원래 천황가의 연회 때 차려지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었다. 헤이안(平安時代) 때에는 1월1일, 1월7일, 3월3일(上巳), 5월5일(端午), 7월7일(七夕), 9월9일(重陽)이 되면 조정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신들에게 바치고 그 축하의 음식으로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오세치」는 설날을, 「오셋쿠」는 3월3일과 5월5일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원래 「오세치」라는 말은 관동지역에서 사용되어지던 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설날음식을 “설날의 니시메(조린음식)”이라고 했다²⁸⁾

「오세치」 요리를 담는 찬합(杉重)은 정식으로 준비한다면 4단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각 단마다 넣는 내용물도 다르게 넣어야 하는데, 넣는 내용물의 가지 수는 기수가 원칙이다. 조 엄의 일행이 周方州太守 源經永으로 받았던 찬합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물은 현재의 감각에 비추어 볼 때 대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은 할 수 있다.

「오세치」는 4단의 찬합이 있다면 가장 위의 1단에는 “삼헌효(三獻肴)”라 하여 설날음식에서 필수적인 3가지 안주를 넣는다. 그것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 나누어 關東와 關西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즉, 관동지역에서는 검은콩, 청어알, 멸치조림(五万米)이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역에서는 검은콩, 청어알, 우엉이다. 검은콩과 청어알은 모두 공통되지만, 멸치조림과 우엉이 다를 뿐이다. 조엄이 받았던 지역은 시모노세키이었기 때문에 관서풍의 「오세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2단에는 “구찌토리(口取)”라 하여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먹는다는 요리를 주로 넣는데, 그 내용으로는 金団, 蒲鉾, 柚子玉, 伊達券 등을 넣는다. 금단은 껍질을 깠을 가리키는 말인데, 마치 그 색깔이 황금의 색깔과 같아 金이라 하고, 둥근 덩어리를 団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마보코(蒲鉾)는 생선을 갈아서 만든 어묵이다. 대나무 통에 넣어

27) 김세림. 앞의 책. p124

28) 大塚滋, 『食の文化史』(中央公論社, 1975年), pp138-139

구워서 만들었는데, 마치 그 모양이 부들꽃(蒲)의 이삭(穗)과 같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유자는 그 색깔이 액을 쫓고, 오행의 근본을 가리키며, 또 유자는 씨앗을 모두 갖추었을 때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작물이 일제히 맺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담겨졌다. 그리고 伊達卷은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게 하며, 또 卷은 “감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다. 즉, 진보와 교양과 문화를 나타내는 길상의 음식이다.

그리고 3단과 4단에는 「우마미(旨味)」라 하여 본격적인 설날음식을 넣는데, 3단에는 새우, 전복, 도미, 해삼과 같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주로 넣고, 4단에는 아쯔아타마(八頭), 蓮根, 慈姑, 토란과 같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넣는다. 즉, 그야말로 산해진미를 골고루 갖추는 셈이다.²⁹⁾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오세치」를 조 엄의 일행은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다. 이는 정식의 「오세치」 요리라면 강 홍중이 대마도인들로부터 받았다는 술과 떡, 전복은 그것을 간략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오니(雜煮)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일본식 떡국이다. 일본사람들도 설날하면 「조오니」를 생각하고, 「조오니」하면 그 속에 든 떡을 연상한다. 그만큼 떡과 설날의 관계는 깊다. 심지어 설 기간 동안 그 떡을 자기 나이 수만큼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다. 속담에도 “떡을 먹으면 사흘이 든든하다” “떡을 먹으면 속이 데워진다.” “떡을 먹으면 여름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날만은 떡 먹기를 서로 권하였던 것이다³⁰⁾. 이처럼 「조오니」는 설날음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³¹⁾

강 홍중이 떡을 받았다고 하고, 또 조 엄이 설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떡은 우리의 것처럼 길다랗게 생긴 가래떡이 아니다. 그 모양이 우리나라 진빵처럼 둥글게 생긴 것이 있는가 하면 넓적하고 편편하게 사각형으로 생긴 것이 있다. 전자는 관서지역에 주로 많고, 후자는 관동지역에 주로 많다. 조 엄의 일행이 받았던 떡 모양을 그는 “圓容”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서풍의 둥근 것을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이 떡을 받아서 일본식 「조오니」를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한편 도소주(屠蘇酒)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김세렴의 기록에서만 약간 보일 뿐이다. 도소주는 설날에만 마시는 술이 특별한 술이다. 설날 아침이면 음식을 먹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마시며 새해의 인사를 나누며, 또 손님이 왔을 때 세찬을 내놓기 전에 도소주를 먼저 대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도소주는 대개 검은 옷칠한 목기 주전자에다 담고서 나무로 만든 편편한 잔에 부어 마신다. 김 세렴이 금술병이라 한

29) 오세치요리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일본의 설날음식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20)』(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년)을 참조

30) 大後美保, 『ことわざ歳時記』(毎日新聞社, 1971年), p236

31) 조오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노성환 앞의 논문(2001년) 참조

것은 정말 금으로 만든 술병이 아니라 목기에 화려한 금박으로 옷칠한 것을 잘못 보고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도소주란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증류주 일종인 소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혼합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즉, 肉桂, 山椒, 大黃, 白朮, 細辛, 乾薑, 防風, 桔梗 등을 삼각형으로 만든 붉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술과 味醂에 담가두어 만든다. 그러므로 알콜도수도 거의 없어 술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약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도 그것을 술 “酒”자를 빼고 그냥 “屠蘇”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도소주를 일본인들은 “屠”를 죽인다. “蘇”는 소생. 부활로 해석하여 “鬼氣를 屠蘇시키고 人氣를 蘇生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즉, 잡귀를 물리치고 무명장수를 기원하는 약주로서 마셨던 것이었다³²⁾ 이러한 도소주는 직접 먹어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인지 김 세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간접회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하튼 그들은 조선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된 도소주를 일본에서 들었던 것이다.³³⁾

3. 기록에 보이지 않는 설날의 민속

(1) 설날의 행사(若水迎え, 惠方參り)

그럼 이번에는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보았다 하더라도 기록에서 빠뜨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설날의 행사부터 보기로 하자

설날행사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설날에 필요한 물을 길는 일이다. 그 물을 「와카미즈(若水)」라 하고, 그것을 길러 가는 것을 「와카미즈무카에(若水迎え)」라 한다.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특히 동북지방과 관동지역에는 주로 남자가 맡았는데, 그를 「토시오토코(年男)」라 불렀다. 「토시오토코」는 대개 집의 가장이 맡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남이 맡을 때도 있다. 그 일을 맡게되면 설날의 행사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총괄하여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말부터 설날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가며, 설날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을 길러와 끓이고, 불을 지피고, 음식을 장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능한 한 설날의 행사에 여자를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또 물을 길기 전에 물의 신 또는 샘의 신에게 설 떡을 바치기도 한다. 이처럼 물을 길러오는 「토시오토코」를 통신사들은 보지 못하였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여 졌던 「에호마이리(惠方參り)」에

32) 도소주의 유래와 의미에 관해서는 노성환의 앞의 논문(2001년)을 참조

33) 임동권에 의하면 도소주는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셨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 점차 사라졌다 한다. 자세한 것은 임동권의 『한국세시풍속연구』(집문당, 1985년), p134 참조

관한 풍속에 대해서도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에호(惠力)」란 설날의 신이 머무는 방향을 말하는데, 그 방향이 해마다 틀린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신사와 절은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방향에 있는 신사나 사찰에 참배하여 가내안전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을 「에호마이리(惠方參り)」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설날 아침 물을 길어 오는 「토시오토코」와 「에호마이리」를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통신사는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은 「와카미즈」를 걷는 시간은 해도 뜨기 전 컴컴한 새벽녘이며, 또 「에호마이리」는 전날 밤에 들러 그곳에서 밤을 지새며 근신하였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설날 아침 일찍이 그곳을 다녀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도 오늘과 달리 자기 집 부근에 위치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그러한 풍속이 없는 조선인으로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사나 절을 다녀오는 사람들을 세배를 다니는 모습으로 파악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오바야시 타료오(大林太良)는 우리나라의 풍속 중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용알뜨기(傍龍卵) 행사³⁴⁾를 일본의 「와카미즈무카에」와 같은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³⁵⁾

그러나 일본의 「와카미즈무카에」는 정월 초하루에 하고, 한국의 용알뜨기는 정월 대보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한국의 경우는 황해도와 평안도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는 민속인가 하면 일본의 「와카미즈」는 전국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민속이며, 또 일본의 물을 걷는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하여 남자가 해야 한다는 지방과 여자가 해야한다는 지방이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의 그것은 여자가 맡고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비록 그것이 같은 계통의 행사라 하더라도 통신사의 일행이 알아차리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조그만 관심을 기울여도 금방 알 수 있는 「토시오토코」와 「에호마이리」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들을 기록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2) 설날의 장식(年棚 鏡餅 寶船)

또 조선통신사들이 빠뜨리고 있는 실내에 장식하는 설날의 장식물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토시타나(年棚)」와 「카가미모찌(鏡餅)」가 있다. 「토시타나」란 설날의 신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단을 말한다. 年德棚 또는 惠方棚이라고도 한다. 대개 설날 그믐날 청소를 설날 맞이 대청소를 끝내고 만드는 경우가 많다. 모양은 네모난 판자의 네 귀

34) 조선 정조 때의 유학자인 洪錫謨의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황해도와 평안도 풍속에 보름 전날 밤 닭이 울 때를 기다려서 집집마다 비까지를 가지고 서로 앞을 다투어 정화수를 길어온다. 맨 먼저 걷는 사람이 그 해의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35) 大林太良『正月の來た道』(小學館, 1992年). p64-65

통이에 구멍을 뚫어 끈을 묶어 천장에 매달거나, 대들보에 길다란 막대기를 늘어뜨리고 거기에 매다는 곳도 있어 그야말로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크기도 집집마다 조금씩 틀린다. 그리고 그것에 「시메나와」가 쳐지고, 소나무 가지로 장식되며, 그곳에는 「카가미모찌」, 술, 「조오니」, 소금 등이 바쳐지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른 오징어, 꽃감, 생밤, 다시마, 검은 콩, 半紙, 두건, 숯, 밀감, 생선, 무 가운데 적당히 몇 개를 골라 바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설날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것이다.

그리고 「카가미모찌」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에게 바치는 떡이다. 그 모양은 대개 두 가지이다. 한가지는 진빵처럼 둥글게 생긴 것과 또 하나는 편편하고 네모나게 만든 것이 있다. 전자는 관서지역에 많고, 후자는 관동지역에 많다. 이를 장식하여 놓아두는 곳은 신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공간인 「카미다나(神棚)」 또는 「토코노마(床の間)」이다. 놓아둘 때는 나무로 만든 제기 위에 흰 종이를 깔고 각기 크기가 다른 두세 개를 포개어 엮어놓고 맨 위와 사이사이에 장식을 한다. 장식물은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개 철부채, 큰새우, 꽃감꼬지, 등자나무, 풀고사리(裏白), 굴거리나무(讓葉), 다시마, 흰 종이를 네 가닥 정도로 잘라 양쪽에 늘어뜨리는 시테(四手)라는 것들이 있다. 조선통신사들이 받은 경병은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설날에 먹는 설떡이었던 것이다.

또 설날이 되면 가정에 보물선 그림을 붙여놓기도 했다. 이를 宝船이라 했다. 그 배는 돛을 달고 있는 범선이고, 거기에는 일곱 명의 福神과 쌀가마와 보물이 가득 실려져 있다. 이를 정월 초하루와 이튿날 밤 베개 밑에 깔아두고 자면 좋은 꿈을 꾸는다는 속신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보물 보물” 하고 소리치며 그 그림을 팔러 다니는 장삿꾼이 있었다. 만약 그 기대와는 반대로 악몽을 꾸었을 때는 그 그림을 물에 띄워 보냈다 한다. 그리고 그러한 풍경이 明治 中期까지 있었다고 한다. 36)

실내에 장식된 「토시타나」와 「카가미모찌」는 조선통신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다. 그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칠복신이 타고 있는 보물선 그림 장수는 명치중기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37) 이러한 것이 그들의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보고도 기록을 빠뜨렸거나 아니면 당시 그러한 풍속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민간에 유행된 것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중기부터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38) 그러므로 강 홍중과 임 광의 일행이 갔던 17세기는 보물선 장수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며, 또 1764년에 갔던 조 엄의 일행도 그것이 막 생겨나는 시기이므로 관찰의 대상에서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통신사의 기록은 일본 민속의 변천사를 생각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6) 佐佐木勝「寶船」『日本民俗大辭典(下)』(吉川弘文館 2000年). pp32-33

37) 佐佐木勝, 앞의 책, pp32-33

38) 紙谷威廣「七福神」『日本民俗大辭典(上)』(吉川弘文館, 2000年). p775

(3) 설날의 놀이(歌留多, 주사위, 福引, 연날리기, 팽이 돌리기, 羽根突き)

통신사들은 설날의 놀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 성행했던 설날의 놀이로서는 실내의 것으로는 「카루타(歌留多)」, 주사위 던지기, 「호오비키(福引)」 등이 있었고, 실외의 것으로는 연날리기, 팽이 돌리기, 「하코이타(羽子板)」 등이 있었다.

「카루타(歌留多)」는 카드를 나타내는 포르투갈어의 카르타(Carta)에서 유래된 말로 그 말대로 일본식 카드놀이이다. 거기에는 花鳥風月을 그린 화투와 같은 도박계통의 것이 있는가 하면, 百人一首와 같은 100명의 유명한 시인의 작품을 적은 교육계통의 것이 있다. 그리고 「호오비키」는 사람 수만큼 실을 준비하고, 그 중의 하나는 실 끝에 몽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숨긴 다음 각자 하나씩 선택하여 그것을 잡아 당겨 실몽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긴다는 놀이이다. 그리고 실외의 놀이 가운데 「하코이타」는 베드민턴처럼 날개 달린 공을 서로 판자로 만든 라켓으로 주고받기를 즐기는 놀이이다.

조선통신사들이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놀이를 보지 못한 것은 이해를 가나, 실외의 놀이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통신사 자신들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기록에서 빠뜨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측에서 통신사들에 대해 배려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통신사들이 머무는 곳에서 놀지 못하도록 하였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이들이 설날의 놀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세시풍속을 그림으로 남긴 『동도세사기(東都歲事記)』 『제국도회 연중행사대성(諸國圖繪 年中行事大成)』 등을 보더라도 연을 날리기, 팽이 돌리기, 「하코이타」 놀이를 하는 풍습을 찾기로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점등을 생각하면 전자의 것보다 후자의 것이 더욱 설득력 있게 보인다. 아니면 두 가지의 이유가 다 작용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通信使들의 日本 설날에 대한 認識과 海行摠載의 意義

(1) 通信使의 설날에 대한 認識態度

조선통신사들은 사실상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일본 설날의 민속을 꼼꼼히 챙겨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기대 이상으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민속은 대부분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들이 일본설날의 민속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일본의 설날민속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보물선 그림 장수, 신사를 참배하고

다녀오는 사람, 그리고 옥외에서 벌이는 설날놀이 등을 거리에서 목격하는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지는 일본민속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일본의 민속을 설명하는데 매우 상투적인 수식어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 가령 세배의 풍속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임 광은 “비록 오가며 세배하는 규례가 있기는 하나, 후문에서 이름을 적고 선물을 놓고 가는데 주인 역시 나와 보지 않고 문밖에다 종이, 붓, 벼루만을 놓아둘 뿐이다.³⁹⁾”라 한 표현을 황 호가 다시 “세배하는 예는 비록 있기는 하나 뒷문으로부터 이름을 써넣고 선물을 두고 간다. 그 집에서도 역시 나가서 접대하지 않고 다만 종지와 붓을 밖에 둘 뿐이다.⁴⁰⁾”라고 거의 같은 표현을 하였다. 김 세렴도 이를 다시 반복하듯이 “세배하는 예 같은 것도 있기는 하나 뒷문에서 종이에 이름을 써 놓고 가는데 그 집에서도 역시 나가서 접대하지 않고 다만 종지와 붓을 밖에 두어 이름을 써 놓게 할 따름이다.⁴¹⁾”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표현은 모범이 되는 어느 하나를 놓고 베꼈다고 할 만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틀에 박힌 듯한 똑같은 어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설날 민속을 학문적 호기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우 가볍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김 세렴의 “문밖에 감귤 큰 것 한덩이를 달았다.⁴²⁾”는 기록처럼 그 감이 문밖 어디에 달았는지, 아니면 「시메나와」와 함께 달았는지 알 수 없도록 애매한 표현마저 엿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기록 중 해설이 없으면 이해가 안될 부분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1764년 사행의 경우(조 엄) 연말에는 홍어, 경병, 감자, 곤포, 향이, 생울, 돼지, 찹쌀과 팥을 받았고, 연시에는 설떡, 삼중, 소면과 엿 등을 받고 있다. 그 중 돼지는 특별히 조선통신사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 것 같고,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길상의 의미가 갖들어 있기에 선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의 품목 가운데 홍어(洪魚)는 붉은 도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축하 또는 경사의 의미의 색깔이 붉은 색을 띠고 있고, 또 도미를 일본어로 「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경축을 의미하는 「메테타이」의 「타이」와 같은 발음이 나기 때문에 길한 음식으로 선물을 하였고, 감자(柑子)는 감귤의 종류를 가리

39) 임광, 앞의 책, p380-381

40) 황호, 앞의 책, p409

41) 김세렴, 앞의 책, p124

42) 김세렴, 앞의 책, p124

키는 말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색깔이 황금색으로서 길한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곤포(昆布)는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어로 「곤부」라 하는데 그것이 기쁘다는 「요로코부」의 「코부」와 유사한 발음을 지니고 있어 길한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생밤은 「카치구리」라 하는데, 그것은 이긴다는 의미의 말인 「카치」와 밤이라는 말 「구리」가 합쳐진 말로서 딱딱하고 야문 것을 일부러 먹음으로써 잇빨을 튼튼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한다는 좋은 의미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찹쌀과 팥도 일상식과 다른 특별식으로서 설날의 곡식으로 택하여졌던 것이다. 특히 팥은 붉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붉은 도미처럼 경사스러운 곡물로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길상의 음식들을 골라 조선통신사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설날의 별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물품 가운데 삼중(杉重)과 경병(鏡餅)은 해설을 짓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것까지 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에 대한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는 일본인들로부터 들음직도 한데, 그러한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태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민속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그들의 기록에서 일본 민속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되도록 낮게 평가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일본의 설날민속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가령 주방주 태수 원경영이 세찬을 찬합에 넣어 선물을 하였을 때 그 안에다가 조화로 장식했다. 그를 보고 조 엄은 “일본인들은 기이한 것을 좋아한다.”⁴³⁾고 그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 以醢庵의 승려들이 1월 4일에 소면과 엿을 보내면서 새해인사를 하면서 “승려들은 정월 3일 이전에는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세찬이 조금 늦었다.”⁴⁴⁾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불교의 풍속은 정말 가소로웠다.”⁴⁵⁾고 애써 폄하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절에서는 1일부터 3일까지는 승려들은 세배를 다니지 않는 풍속이 있다. 그들의 세배는 4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승려들의 설날(坊主正月)” 또는 “절의 설날(寺正月)”이라고 한다. 이는 설날을 신도계통의 명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3일까지는 불교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생겨났다. 다시 말하여 불교와 신도의 역할구

43) 조엄, 앞의 책, p131

44) 조엄, 앞의 책, p132

45) 조엄, 앞의 책, p132

분에서 오는 결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정암의 승려의 말에 대해 가소롭다는 평가된 것은 불교민속을 전혀 모르거니와 또 알고고도 하지 않는 문화적 몰이해에서 나온 표현이었다. 이처럼 일본설날의 민속에 대해 낮게 평가하려는 태도를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그들은 일본의 설날풍속을 어디까지나 자기문화의 중심으로 보려는 사고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소나무와 대나무로 장식한 가도마쓰(門松)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금방 우리나라의 푸닥거리와 세화와 같다고도 하고 또 중화의 풍속을 약간 모방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 홍중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날 기간 동안 바깥에 다니지 않는 풍속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일에 세배하러 온 자들에게는 “신정에 문후하는 예절이었다.”⁴⁶⁾고 평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는 반드시 왜인 가운데에서도 사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⁴⁷⁾고 인간의 품성까지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풍속 때문에 거리가 한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그는 또 오랑개의 풍속이 소박하거나 아니면 민간의 생계가 풍족하지 못하여 유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일본민속문화를 보는 시선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 서서 가능한 한 낮게 평가하려고 했다. 그야말로 강 홍중이 일본인을 “오랑개”라고 표현한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들의 일본 설날 민속의 이해는 편견에 사로잡힌 문화적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보아진다.

(2) 海行摠載의 民俗學的 價値와 意義

조선통신사들이 살았던 당시는 중국문화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대주의 문화관념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문화상대주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그들은 정치 외교적인 관계로 국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기록은 연구자의 조사노트와는 다른 여행자의 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설날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록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속학적으로 매우 중요한史料적 가치를 지닌다. 즉, 첫째는 당시 일본의 지방문화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홍중의 일행은 駿河의 藤枝에서 설날을 맞이했고, 임 광, 김 세렴, 황 호의 일행은 카나가와(神奈川)에서 맞이하였으며, 조 엄은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설날을 각각 맞이했다. 이처럼 조 엄을 제외하면 모두 관동지역에서 설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고 경험한 설날의 기록은 매우 지역적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

46) 강홍중, 앞의 책 p247

47) 강홍중, 앞의 책 p247

이 당시 일본 설날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오늘날 당시의 세시풍속에 대해 기록한 문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의 것을 서술 해놓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조선통신사의 기록은 과거 일본이 지녔던 지역의 민속과 중앙의 민속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측 문헌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그들의 기록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문밖에서 세배의 절차를 마치는 「몬레이(門禮)」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선물만 남기고 가는 「메이시우케(名刺受け)」 등은 일본의 문헌에서 그 예를 찾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 그리고 「토시타마(年玉)」를 평교인 경우는 부채와 종이가 하고 존처(관백과 천황)에게는 의복과 황금조각으로서 한다는 부분의 기술도 일본 문헌에서도 그다지 흔치 않는 예이다. 그 중에서도 황금조각을 봉투에 넣어 들고 와 세 배하면서 존처에는 이렇게 선물한다고 인사를 한 왜인의 말을 기록한 김 세렴의 기록은 그야말로 찾기 힘든 중요한 대목의 기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조선통신사의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셋째는 그들의 기록은 당시 일본의 설날민속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왔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점이다. 먼저 당시의 것들 중에 오늘날에도 변함 없이 행하여지는 것은 「가도마쓰」와 「시메나와」 그리고 경병이라는 설날의 장식물이 있고, 또 먹는 음식으로는 세찬과 도소주를 들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은 변함 없이 내려져 오고 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시장 또는 대형 마켓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당시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 가령 설날기간 문을 열지 않고 근신을 한다거나, 또 현관에서 세배의 인사를 나누고 가는 「몬레이(門禮)」, 그리고 뒷문에 이름과 선물을 놓고 가는 「메이시우케(名刺受け)」도 없어졌다.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가는 것을 피하는 금기도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한편 어떤 것은 옛날에 비해 그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시타마(年玉)」이다. 옛날에는 「토시타마」로 사용되던 것은 어른들의 교제의 상징으로 부채와 종이가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현금이다 그것도 어른이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호마이리」가 「하쓰모오데(初詣)」로 바뀐 것도 하나의 큰 변화이다. 「하쓰모오데」는 명치(明治) 이후 새롭게 생겨난 풍습이었다. 오늘날 통계를 보면 8000만명 이상이 설날을 기해 신사나 사찰로 참배를 간다고 한다. 카와사키다이스(川崎大師),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등 유명한 신사와 사찰은 300만 명 넘게 찾아가는 러시아워를 이룬다고 한다. 이처럼 현대에 있어서 설날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정착한 「하쓰모오데」는 「에호(惠方)」라는 방향에 대한 신앙이 퇴색되고 단지 유명한 신사나 절에 참배하면 된다는 현대적 감각이 낳은 산물이었다.⁴⁸⁾

또 옛날에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정을 넘기자마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요홍백전이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근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깥 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며, 또 설날 오후 도착한 연하장을 읽는 풍습은 조선통신사들이 갔을 때는 없었다. 연하장은 뒷문에 자기 이름을 적고 선물을 놓고 가는 세배풍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생겨난 새로운 설날풍속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롭게 생겨난 현대사회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당시의 설날풍속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형태로 변하여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자료적인 가치를 통신사들이 남긴 기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겠다.

5. 결 론

조선통신사들은 외교의 목적으로 일본을 장기간 여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인과의 접촉도 매우 제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부의 것을 제외하면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대부분의 설날의 민속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체험하고 듣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당시 일본인들이 설날의 풍속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즉, 연말부터 출입구에 門松과 左繩으로 장식하고 설날이 되면 15일까지 대문을 열지 않고 금기적 생활하며, 세배에는 「名刺受け」와 「門禮」 및 실내 방문 등이 있으며, 그 때 선물은 부채가 일반적. 고관의 경우 약간 음식을 먹는 시늉만 하고 돌아가듯이 오래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설날의 선물로는 전복, 술, 떡, 적도미, 昆布, 감자, 향이 생밤, 「오세치」 요리, 황금 조각 등을 했었다. 또 불가에서는 연시행사를 1월 4일로 하며, 그들의 선물은 소면과 엿으로 한다. 그리고 설날에는 술과 떡, 屠蘇酒를 먹고 마시며 보낸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의 기록에서 「토시타나」, 鏡餅과 같은 실내의 설날장식이라든가 또 「토시오 토코」와 「와카미즈」 그리고 「에호마이리」와 같은 실외의 행사라든가, 또 「오세치」와 「조 오니」 그리고 屠蘇酒와 같은 설날음식, 「카루타」, 주사위 던지기, 「호오비키」와 같은 실내 놀이 그리고 팽이돌리기, 연날리기, 「하코이타」와 같은 실외놀이 등을 빠뜨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보았지만 관심이 없어 기록에서 누락시켰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민속들이 당시 생겨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들의 기록이 비록 여행자 시점에서 이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록이 민속학적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일본 각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또 일본문헌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중요한 민속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또 현재의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문 열지 않고 외출을 삼가고 근신하는 생활, 「名刺受け」와 門禮와 같은 세배의 풍습, 그리고 부채 종이 의복 등으로 새해의 선물로 주고 받는 풍속은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음을 알 수 있고, 또 「가도마쓰」와 「시메나와」, 「카카미모찌」, 세찬과 도소주 등은 그와 반대로 오늘날까지 변함 없이 내려오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시타마」는 세뱃돈, 「에호마이리」는 「하쓰모오테」로 그 의미가 변화된 것도 있으며, 칠복신의 그림은 당시에 없었으며, 또 가요홍백전. 여행과 연하장 등이 새롭게 생겨난 풍속 등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점이 문화우월주의에 입각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일본을 바라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현재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 당시 생활상을 엿보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설날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3월의 삼진, 5월의 단오, 칠월의 칠석, 8월의 「오봉」 등 중요한 세시풍속 등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연구를 확대하여 그들이 본 일본의 세시풍속을 정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김세림 『해사록』 『국역해행총재(4)』(민문고, 1967年)p.124
- 강홍중 『동사록』 『국역해행총재(3)』(민문고, 1967年)pp.124-248
- 노성환(2001) 「일본의 설날음식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20)』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227-228
- 노성환(1997)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 교보문고
- 임광 『병자일본일기』 『국역해행총재(3)』(민문고, 1967年)pp.380-381
- 임동권(1985)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p.134
- 洪錫謨著(1989) 崔大林譯 『東國歲時記』 흥신문화사. pp.24-26
- 황호 『동사록』 『국역해행총재(4)』(민문고, 1967年)p.409
- 한태문(2002) 「통신사 사행록에 나타난 대마도」 『일본연구(1)』 울산대학교 일본연구소, pp.19-20
- 大後美保(1971) 『ことわざ歳時記』 毎日新聞社, p.236
- 大塚滋(1975) 『食の文化史』 中央公論社, pp.138-139
- 大林太良(1992) 『正月の来た道』 小學館, pp.64-65
- 川田壽(1993) 『江戸風俗 東都歳事記を読む』 東京堂出版, p.16
- 鈴木棠三(1977) 『日本年中行事辭典』 角川書店, pp.65-66
- 谷川健一(1979)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22)』 三一書房, pp.32-35
- 東京都世田谷區教育委員會編(1986) 『口譯 家例年中行事<上町大場家>』 東京都世田谷區教育委員會, pp.67-69
- 永田久(1989) 『年中行事を科學する』 日本經濟新聞社, p.5

要 旨

周知の通り、朝鮮通信使は外交目的で日本を長期に亘り旅行したわけで、彼らの日本および日本文化に対する視線が、今日の研究者たちのそれとは異な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至極当然である。しかし、通信使一行は、日本滞在中に日本人との接触もかなり制限されていたにも関わらず、外部から観察が可能な正月行事をはじめとする諸々の民俗事象を、直接あるいは間接的に見聞し、記録に止めているのである。その記録が、例え旅行者の視点から記述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民俗學的に価値を持つことは、各地域の文化を垣間見る端緒を提供し、また日本に残されている文獻でもよく記されていない民俗行事に対する説明もあり、また現行の当該民俗と比較した場合、その変化の様相を看取できるとう点にある。例えば、日本人が正月に外出を憚ることや、いわゆる名刺受けによる訪問者接待、門礼のような風習、さらには扇子・衣服・紙などを土産として贈答する風俗は、今日の日本では見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逆に門松と注連縄・鏡餅・御節料理・お屠蘇などは、今日なお見られる民俗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る。また「年玉」は「現金」に、「恵方参り」は「初もうで」というように、各々の民俗が持つ意味内容が変化して伝えられているものや、七福神の繪を飾るという行爲をはじめ、現代日本の年末から新年にかけての風物詩ともなっている紅白歌合戦や年賀状などが新しい風俗だと分かるのも、その記録があるからである。彼らの日本に対する観点には、若干、文化優越主義に基づく自己中心的な眼差しが見受けられるものの、その記述内容には、今日の日本では全く忘れ去られた民俗事象も多く散見できる。上述の観点から言って、朝鮮通信使の記録は、当時の日本の生活相を理解する上での貴重な史料と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通信使, 正月, 海行摺載, 門松, 門禮, 名刺受け, 鏡餅, 年玉

투 고 : 2003. 11. 30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번지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어 일본학과

電 話 : 052-259-2542

E-mail : nosh1@hanmail.net